

화려한 서울 모터쇼! 정말 기대된다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자동차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있어 자동차의 역할 만큼 큰 것도 없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현대인들에 있어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해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포드는 ‘자동차가 문화를 만든다’고 했고,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86년 자동차 탄생 100주년 기념사에서 ‘자동차는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역설하면서 자동차가 인류의 현대문명에 기여한 업적을 찬양하면서 자동차와 인간과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했다. 자동차는 업체와 자동차 생산국의 ‘문화’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태어난 산물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비록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이지만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었다.

과거 초창기적 자동차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동차는 생김새부터 연료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에서 가장 친환경 자동차로 거듭나고 있다. 또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각종 편의 장치 개발로 안락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모터쇼다.

◆ 자동차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모터쇼 활용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하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인식돼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모터쇼를 적극 활용해 왔다. 이는 모터쇼가 자동차박물관, 모터스포츠와 함께 한 나라의 자동차대중화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모터쇼의 역사와 권위가 바로 그 나라 자동차산업과 문화수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개(1년에 100여개 개최)의 크고 작은 모터쇼가 열리고 있으나 이중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에서 공인받은 국제모터쇼는 30여개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동경모터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96년에 공인받았다.

◆ 산업박람회장 눈요깃거리가 모터쇼의 전신

모터쇼는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그 당시 상류층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레이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인기 있는 차, 잘 팔리는 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레이스 참가선수들은 저마다 자기 차를 특색 있게 꾸몄고 관중들은 자동차 경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의 자동차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유행했던 산업박람회장에 눈요깃거리로 자동차를 전시한 것이 바로 현대 모터쇼의 전신인 셈이다.

◆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0여 곳서 열려

세계 최초의 모터쇼는 1897년 독일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모터쇼다. 그 이후 프랑스가 1898년 파리모터쇼를 개최하였으며 미국이 1899년 디트로이트모터쇼, 1903년 시카고모터쇼를 영국이 1903년 버밍엄모터쇼를 개최하는 등 경쟁적으로 모터쇼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주요 모터쇼는 프랑크푸르트모터쇼, 파리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 제네바모터쇼, 동경모터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세계 5대 모터쇼라 말한다.

세계 모터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모터쇼는 6만평이 넘는 전시장에 전 세계 40여 개국 2천 여 업체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모터쇼라 할 수 있으며, 파리모터쇼는 짝수 해에 개최되는 최대 모터쇼라 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의 메카인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디트로이트모터쇼는 1989년부터 명칭을 북미국제모터쇼로 변경하였다.

미국 내에서만 시카고모터쇼, LA모터쇼 등 수십 개의 모터쇼가 개최되고 있지만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모터쇼로 인정을 받았으며 매년 연초에 개최되어 그 해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중요 모터쇼이다.

제네바모터쇼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모터쇼라는 점과 매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그 해 유행할 자동차 디자인 및 유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터쇼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경모터쇼는 지난 1954년 전일본자동차쇼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었으나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5년 21회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었고, 1964년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11회 전시회부터 동경모터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양 최대의 모터쇼로서 관람객 수가 최고 2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모터쇼이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자동차 전시회는 크고 작은 행사를 합쳐 연간 100여 곳에서 열리고 있어 이를 계산하면 평균 2~3일에 한번 꼴로 모터쇼가 개최되고 있는 셈이다.

◆ 매 홀수 해 4월에 개최되는 서울 모터쇼

서울 모터쇼는 1995년 5월 처음 개최되었으며, 주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한국자동차공

업협동조합(KAIC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이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1997년에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모터쇼다. 2002년까지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나, 2005년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로 대회 장소를 옮겨 매 홀 수해 4월에 개최한다.

전시시간은 보도진을 위한 프레스데이 1일, 개막식 및 일반인 공개 10일 등 총 11일간이다. 최근에 개최된 서울모터쇼는 2009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124개 업체, 해외 4개 업체, 부품 및 용품 14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시 품목은 승용차·상용차·이륜차·부품 및 용품 등이었다. 전시규모는 5만 4,176㎡, 관람인원은 95만 6,650명이었다.

◆ 2011서울모터쇼 역대 최대 규모… 139개 업체

2011서울모터쇼가 3월31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11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2011서울모터쇼는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 (Evolution, Green Revolution on Wheels)”을 주제로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연료전지, 타이어, 자전거, 부품 및 용품 등의 품목을 전시할 예정이며, 특히 완성차업체에서 출품하는 신차, 컨셉트카, 친환경 그린 카 등의 비교전시로 미래자동차 시장의 동향과 신기술 등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국내 111개 업체를 비롯해 해외 28개 업체 등 총 8개국 139개 업체가 참가하고,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1서울모터쇼는 현대자동차의 HND-6, 기아자동차의 KND-6, 한국지엠의 Miray, 르노삼성자동차의 SM7 후속(쇼카), 대우버스의 BC211M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등 총 54대의 신차가 출품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HCD-12, 기아자동차의 K5 하이브리드카, UB, POP, KV-7, 한국지엠의 크루즈해치백, 캡티바(SUV), 알페온e-Assist, 쌍용자동차의 SUT-1, BMW의 650i Convertible, 미니(MINI)의 Cooper S Clubman, 포르쉐의 918 RSR, Boxster S Black Edition, Cayman R, 크라이슬러의 New 300C Prestige, New 300C, 200C, 200C Convertible, New Grand Voyager, 포드의 All New Explorer, 푸조의 New 508 HDi, New 508SW HDi 등 22대가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고, 27대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그밖에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컨셉트카 23대, 친환경 그린카 32대 등을 전시하고, 또 국내외 메이저급 부품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미래형 최첨단 부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텔레매틱스 국제세미나’, ‘전국 대학생 작자자동차 대회’, ‘전국 대학생 카디자인 공모전’, ‘UCC콘테스트’, ‘모터쇼를 빛낸 Best Car 시상’ 등의 기존 부대행사 이외에 ‘친환경자동차 시승행사’ 등 신규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측은 이번 2011서울모터쇼가 해외바이어 1만 2천명 유치 및 13억불의 수출 상담과 고용, 생산, 관광, 운송 등 경제적 파급효과 1조 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KAICA)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역대 서울모터쇼는?

- 1995 주제 : '자동차! 움직이는 생활공간, 풍요로운 삶의 실현' 코엑스에서 열렸고 204개 업체, 7개국이 참여했다. 총 993,121명 입장
- 1997 주제 : '꿈을 현실로, 미래를 오늘로' 코엑스에서 열렸고 145개 업체, 11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671,000명.
- 1999 주제 : '차와 인간, 그 영원한 우정' 코엑스에서 열렸고 146개 업체, 8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460,720명.
- 2002 주제 : '자동차! 또 하나의 꿈' 코엑스에서 열렸고 192개 업체, 11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709,910명.
- 2005 주제 : '변화! 계속되는 놀라움' 킨텍스에서 열렸고 179개 업체, 10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1,019,923명.
- 2007 주제 : '창조-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킨텍스에서 열렸고 188개 업체, 11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992,800명.
- 2009 주제 : 'Beautiful Technology, Wonderful Design' 킨텍스에서 열렸고 158개 업체, 9개국이 참여했다. 관람인원은 총 956,650명.

지난 2009년에는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가 금융위기로 불참해 전시공간이 남아돌았던 때와는 정반대로 올해는 전시공간이 부족할 만큼 BMW, GM, 닛산,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주요 수입차업체가 모두 참가신청을 했다.

일본 업체들은 이미 부스 비를 납입한 관계로 대지진에 관계없이 전시한다. 때문에 올해는 GM 등 미국의 빅3 업체와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입차브랜드가 모두 참가해 지난번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져 볼거리가 풍부하다.

한편, 2011서울모터쇼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터쇼

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이안 로버트슨 BMW 판매세일즈총괄 사장, 팀 리 GM해외사업부문 사장, 아난드 마힌드라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세계자동차 CEO포럼'이 열린다. 이는 "한국 차 산업의 위상과 서울모터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 세계 5대 모터쇼 꿈꾼다

동경모터쇼가 쇠퇴하고 상해모터쇼가 기존 프랑크푸르트, 파리,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제네바 모터쇼가 역사나 규모면에서 서울모터쇼보다 우위라는 시각이 있지만 차를 생산하지 않는 스위스에서 수입차로만 이루어진 모터쇼보다는 자동차생산제 5위의 서울모터쇼가 제 5대 모터쇼로 더 어울리는 것 아니냐는 욕심을 내고 있다.

중국의 상해모터쇼가 규모 면에서는 크지만 서울모터쇼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해모터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모터쇼가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월드프리미어 급 신차가 많이 발표해야 되는데 올해도 아시아프리미어 급과 콘셉트 카로 만족해야 될 것 같다. **K**

